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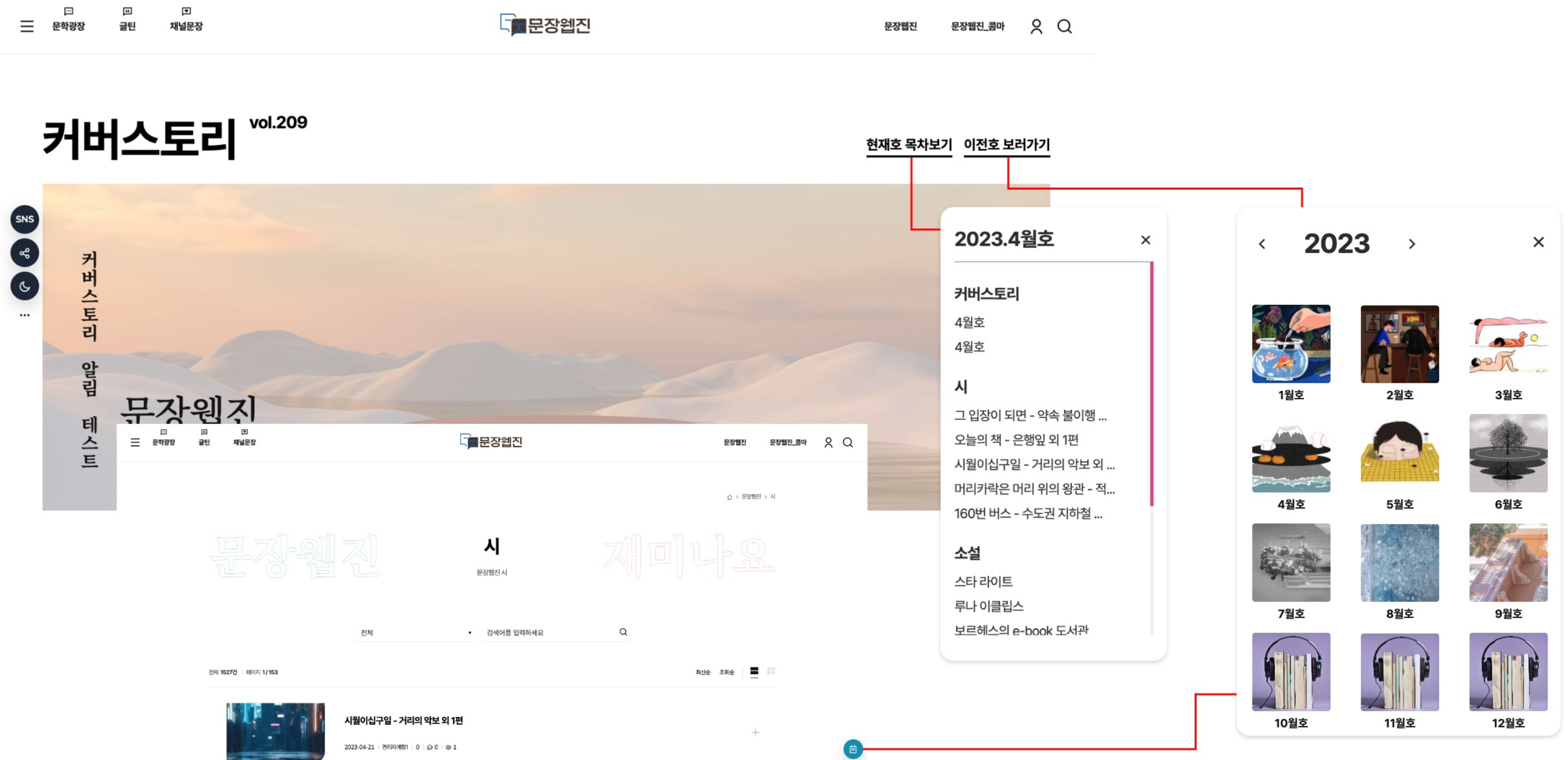


03

콘텐츠 접근 방식 개선

작품 및 미디어 콘텐츠에 있어
보다 개선된 열람 방식에 대해 안내합니다.

1) 웹진 콘텐츠 접근 방식 개선



‘현재호 목차보기’와 ‘이전호 보러가기’ 기능을 통해 보다 직관적으로 호별 작품들을 확인 및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해당 ‘호별 보기’ 기능은 문장웹진 하위 작품 메뉴별로 플로팅 형태로 배치되어 어디서나 편리한 작품 이동이 가능합니다.

2) 작품 열람 편의 기능 반영

≡

문학광장

문장웹진

채널문장

글틴

명예의전당

쓰면서 텀굴

다같이 텀굴

글틴은?

🔍

♡

🔗

🔖

🖨

가

🌙

⚙

...

본문보기설정

✕

배경 컬러

✕

○

○

○

○

○

○

글꼴선택

프리텐다드

≡

≡

≡

글자 크기

20

▬

줄간격

2

▬

글을보는형태

↕

↔

초기화

설정하기

🏠 > 쓰면서 텀굴 > 감상&비평

어린이의 감정으로 풀어낸 전쟁의 참상, 이반의 어린시절

유로치카 • 2023-03-24 • ♡ 0 • 💬 1 • 👁 663

비평글은 영화에 대한 결말과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혹 영화를 시청하기를 고려중 이시라면, 다시한번 재고해주시기를

니다.

은 끔찍하다. 이루어지는 무자비한 폭력은 때로는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기도 하다. 서민들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 그들

속에는 아이들이 있다. 그들이 보는 학살은 어떻게 보이는가. 이반의 어린시절은 그러한 시선을 중립적이면서 때로는 강하게 비판한다.

작품에 대한 관심을 나타낼 수 있는 기능(좋아요/작품 공유/작품 답기)에 더불어 보다 사용자 편의에 맞게 작품을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반영했습니다.

글자 크기 확대 및 축소 / 흑백모드 전환 / 본문 배경 컬러 설정 / 폰트 설정 / 글 보기 형태 전환 기능이 해당사항입니다.

*** 회원의 경우, 작품 열람 시의 개인화된 본문 보기 설정을 다음 작품 열람 시에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작품 본문 내용 강조 및 메모 기능 반영

≡

←

평범과 비평범을 너머, 너와 나를 넘나드는 사랑 - 이희영의 '보통의 노...

♡ 0 💬 0 📌 1

🔍

엄선한 시에는 어머니 없이 그를 잘 키워왔고, 그런 시에의 정성 덕분에 노을은 잘 자랐다. 그 문인가? 특별하지 아니하고 온이 풀 수 있는 -모종의 - 존재가 아니다. 그는 상가에서 중국집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중국집은 배달을 하지 않는 역이나 '평범'치 않은 가게이며 가게 주방장의 딸내미 성하와는 성애적인 감정이 하나도 없는 편안한 친구처럼 지낸다. 학교에서 붙어 다니는 친구는 동우라는 조용한 녀석 단 한 명 뿐이며, 사적인 이야기는 거의 나누지 않는다. 독자가 이 사실을 알기까지에는 책의 절반을 읽어내야 한다. 이거, 특별한 사건이나 갈등 없이 최노을의 비평범성에 대해 나열하다 끝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될 때 즈음에야 몰아치기 시작한다. 노을이 아름답게 지는 것은 폭풍 전야를 예고한다는 말과 같이, 나름대로 잘 살아간다. 노을에게 사건의 시작이 들이닥치는데 어쩌서인지 죄다 사랑과 관련이 있다.

성하의 오빠 성빈은 지혜를 좋아한다. 이 호감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존경에 비롯된 것이 아닌 성애적 감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머니에게 좋은 짝이 생겼으면 하는 소중히 생각하는 어머니가 더 이상 상처 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과 두 사람의 어머니의 파트너가 되는 상황이 평범하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동우는 자신에게 성빈을 소개시켜 줄 것을 부탁할 정도로 흔쾌히 수락했던 노을은 상상치 못했던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 동우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노을이었다. 알면서도 마음은 머리를 따라주지 않는다 말하는 동우를 성하와 노을 모두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동우의 커밍아웃 다음 아버지로 부터 '여느 중국집과 다르게' 배달을 하지 않는 이유를 듣게 된다. 그 이유의 골조는 성하 아버지의 깊은 상처이며 이 성빈의 마음을 응원하겠다는 말을 덧붙인다.

열여덟의 겨울, 굵직한 사건들이 휩쓸고 지나간 자릴 절친한 친구 성하와 함께 돌아보는 것으로 이야기는 막을 내린다.

♡

💬

📌

🖨

가

🌙

⚙

...

형광펜

이 호감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존경에 비롯된 것이 아닌 성애적 감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

평범과 비평범을 너머, 너와 나를 넘나드는 사랑...

글틴 - 명예의전당 • 모모코 • ♡ • 💬 0

메모하기

메모를 작성해보세요!

저장

개선된 문학광장 서비스에서 사용자들은 작품을 읽었을 때, 인상 깊고,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싶은 문장은 별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형광펜'으로 드래그해서 강조한 문장에 자신의 생각을 담은 메모를 직접 입력하고, 해당 강조 문장은 '나의문장>나의글방' 페이지에 개인적으로 저장됩니다.

4) 작가 프로필 연결 기능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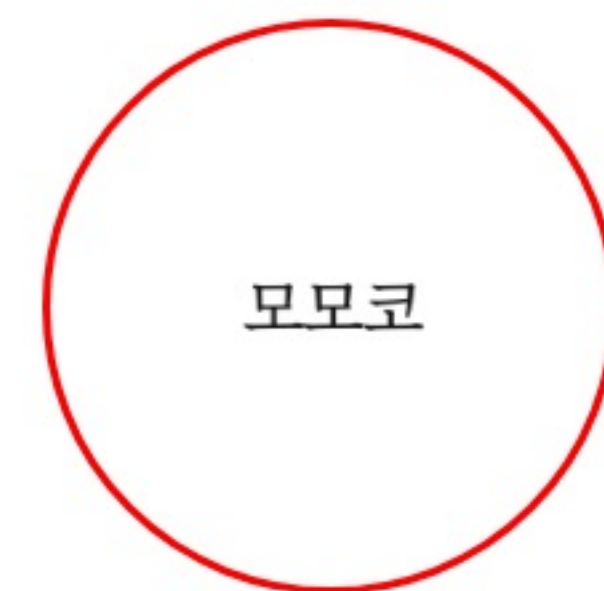
≡ < 평범과 비평범을 너머, 너와 나를 넘나드는 사랑 - 이희영의 '보통의 노을'을 읽고

♡ 0 💬 0 📖 1



작가 정유정은 모든 작가는 자기만의 테마를 지닌 채 평생 그것을 변주하며 이야기를 전하는 일을 했다. 이희영은 <<페인트>>에 이어 <<보통의 노을>>에서도 가족 이야기를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정유정이 말한 바와 같이 친족 관계라는 긴밀한 사이를 테마로 하여 끊임없이 놀라운 변주를 선보인다. <<페인트>>에서는 개인-개인이 뭉쳐 가족이 형성되고, 형성된 가족-가족 사이의 이야기를 담았다면 <<보통의 노을>>에서는 가족-가족이 뭉쳐 형성된 집단-집단 즉, 한 사회의 이야기를 담았다. 가족을 여러 방면으로 풀어낼 뿐만이 아니라 가족애만을 내세우는 구시대적인 소설이 아니기에, 언제나 깊이 있는 동시에 가볍고 물 흐르듯 읽어낼 수 있는 소설이기에 이희영 작가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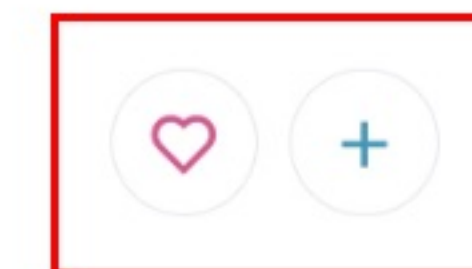
<<보통의 노을>>, 우리가 한 사회의 구성원인 이상 '노을'이 보통의 것인지 아닌지 한 눈에 보이겠지만 그것이 별 대수겠는가? 누군가 정립해 놓은 평균값보다 서로의 마음을 살피며 헤아림과 존중으로 세계를 살피며 살아갈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모모코

모모코

작가 및 청소년 회원 프로필 사진



관심 회원 담기 / 팔로우 하기

목록

개선된 문학광장 서비스에서 사용자들은 작품 상세 페이지 하단에 작가 및 청소년 회원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서비스에서는 단순히 정적인 정보로 다뤄졌다면, 개선 서비스에서는 회원명 클릭 시, 프로필 페이지로 이동하고, 해당 페이지에서 작품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관심 회원 담기' 및 '팔로우 하기' 기능을 통해 해당 회원의 활동을 향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댓글 기능 개선



하나 그리고 둘 - 절반의 진실과 살아가기

♡ 0 💬 1 📖 86



댓글 남기기

로그인후 댓글을 남기실 수있습니다.

읽고 느낀 순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감동했어요 0

최고예요 0

공감합니다 0

훈훈해요 0

! 글 작성시 유의사항 ▾

읽고 느낀 순간을 적어주세요! 로그인 후 남길 수 있어요. 욕설 및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될수 있습니다.

0/500

댓글 1건 멘토의견 0건

최신순 공감순

🕒 오은교

⋮

BLOBE 님 멋진 글 잘 읽었습니다. 절반에 갇혀 사는 삶 속에서도 각자의 유의미한 결론이 있고, 그것이 하나 그리고 둘 모였을 때 가치가 있다는 전체의 논지가 작품이 보여주고 있는 양식과 잘 만나는 것 같습니다. 양양이 가진 카메라, 즉 진실을 탐구하는 빛을 쫓아가는 것으로 시작되는 영화의 인트로가 인물들 각각의 명과 암을 보여주려는 영화의 목적과 잘 상응하는 것 같습니다. 교차편집이 참 멋진 영화이기도 한데, 영화라는 매체가 편집의 예술이기도 하니 특정 장면이 교차 편집되는 것을 또 하나의 비평과 감상 포인트로 삼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그리는 인물들의 감정, 즉 내용뿐만 아니라 그 감정들이 표현되는 형식에도 주목하는 연습을 많이 해본다면 감상을 넘어선 비평적 글쓰기의 한 갈래를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GLOBE님의 다양한 글을 접할 수 있어 좋았어요. 글쓰기가 GLOBE님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랄게요.

^

2023/03/23 21:54

♡ 0

댓글 입력 시, 단순한 텍스트 입력에 더해 해당 댓글에 대한 감정을 추가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글틴 서비스의 경우, 멘토의 댓글과 나머지 회원의 댓글을 분리해 댓글의 성격을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UI를 반영했습니다.

댓글에 대한 답글은 1:1 대응을 원칙으로 답글 계층 확장으로 텍스트 식별이 어려워지는 혼선을 방지했습니다.

6) 미디어 콘텐츠 열람 기능 개선 - 1



채널문장 내 영상 콘텐츠(유튜브)의 표출 형식을 1부와 2부로 나뉘, 영상 내 코너 구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UI를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등록될 미디어 콘텐츠들은 해당 UI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7) 미디어 콘텐츠 열람 기능 개선-2

≡

←

문장의 소리 제752회 : 1부 양안다 시인 / 2부 노은지 소설가

♡ 0 💬 0 📺 46

🔍

A. 양안다 시인 : 분위기가 우울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덜 어려운 걸 읽고 싶으시다면 저의 이전 시집을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옛날이 좋았다는 반응을 종종 봤거든요. 새로운 걸 읽고 싶으시다면 이번 시집 읽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Q. 최근 출간하신 시집 『천사를 거부하는 우울한 연인에게』를 비롯하여 작품 피드백을 찾아보시는 편인가요?

A. 아무런 반응은 안 하고요. 쪽지를 주시는 분들은 형식상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좋은 평도 나쁜 평도 있겠지만, 읽는 자체로 재미있어서 많은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Q. 『천사를 거부하는 우울한 연인에게』라는 제목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A. 저는 시집 제목을 두 개 정도 후보로 가지고 있었고요. 그중 하나였습니다. 편집자님과 대화 나누었을 때 처음엔 다른 제목으로 시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차여차하다가 지금 제목이 되었고요. 다른 후보 하나는 수록작 중 하나인 ‘첫 안경을 쓰는 아이들을 위해’였는데요. 그 제목으로 하게 되면 주제를 뻔히 드러내는 것 같아서 편집 과정 중 지금 제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Q. 시집 『천사를 거부하는 우울한 연인에게』와 관련하여 ‘시인의 말’에 설명을 덧붙여주신다면?

A. 옛날부터 생각했던 게 ‘시인의 말’을 길게 쓰자는 거였는데요. 저는 짧고 멋있는 말을 하지 못하고, 청개구리 심보도 있다 보니 다른 질척거려보자는 느낌으로 썼습니다.

♡

🔗

🔖

🖨

가 가

🔔

☀

⚙

...

문장의 소리 제752회 : 1부 양안다 시인 / 2부...

📺

다음에서 보기: YouTube

등록된 영상은 해당 페이지 내 우측 하단 영역에서 플로팅 형태로 고정되어 이동합니다.

본문 내용을 읽으면서 영상 재생 여부를 언제나 선택할 수 있고, 전체 화면으로 확장해 영상을 시청할 수도 있습니다.

11